

2017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보고서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보고서



유네스코 헌장(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화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에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출처 : www.unesco.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목차

07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소개

11 2017년도 참가자

15 전체 활동

- 워크숍
- 세계 평화의 날(9.21) 기념 온라인 캠페인
- 활동공유회

27 팀별 활동보고서

- | | |
|-----------|------------------------|
| 1. 꿈나눔 | 8. 소꿈 (SOCAF) |
| 2. 나그리다-F | 9. 예그리나 |
| 3. 네꿈내꿈 | 10. 유엔한국학생협회(UNSA)전남지부 |
| 4. 동행(同行) | 11. 지구인 |
| 5. 보동보동 | 12. 하람 |
| 6. 보듬이 | 13. UNAI ASPIRE 고려대학교 |
| 7. 보비광 | 14. UNAI ASPIRE 전남대학교 |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소개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소개

2013년 시작한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는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보호, 환경보전 등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 및 주제들에 대해 청년들이 깊이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변화의 주체(agents of social innov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올해에는 특별히 주제를 평화, 인권, 역사대화 세 가지로 지정하고 '평화누리'를 추가하여 '2017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세부주제
평화	한반도 평화 증진, 각종 형태의 폭력 근절, 민주주의 증진, 종교간 대화, 생명 존중, 상호 존중과 관용 증진 등
인권	인권 인식 증진 및 제도 보완, 차별 철폐,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 교육 및 경제적 평등 확대 등
역사 대화	동아시아 역사 갈등 극복과 협력을 위한 상호 이해와 대화 증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평화누리 볼런티어 사업을 통해 전국 대학(원)생 및 청년(만 18~30세)으로 구성된 동아리·팀(5명~12명 이내)을 선발하여 소정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유네스코 본부·한국위원회 관련 정보 안내, 워크숍 및 활동보고회 개최, 각종 네트워크 활용 지원, 프로젝트 현장 지원 등 청년들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활동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전체 인원 중 대표 및 부대표를 포함한 80%가 대학생이라면 기존·신설·연합·프로젝트성 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기준은 △ 적합성: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 독창성: 프로젝트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 실천가능성: 내용, 인력 상 계획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은가 △ 지역사회 연계성: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연계성이 높은가 △ 파급효과: 프로젝트가 대학 및 지역사회, 우리 사회 인식 및 제도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입니다.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을 충실하게 완료한 팀원들에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팀들은 우대합니다.

1. 외국인 유학생 또는 사회적 소수자가 팀원으로 속한 동아리
2. 2~3년제 대학 소속 동아리
3. 비수도권 대학 소속 동아리
4. 3개 대학교 이상 연합 프로젝트

유네스코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들을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창의력을 이용해 변화를 만드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년들이 사회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활동과 노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며 청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합니다. 많은 대학(원)생·청년들이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를 포함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청년 활동에 참여하여 유네스코의 이념에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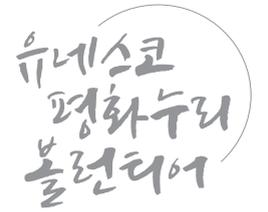


유네스코
평화누리
블런더어

2017년도 참가자

2017년도 참가자

전국 14개팀 120명의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참가



#	동아리명	주제	프로젝트명	인원
1	■ 꿈나눔	평화	72초 배려 드라마 	9
2	■ 나그리다-F	인권	Become a feminist	7
3	■ 네꿈 내꿈 (Dreaming Nepal)	인권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 제작 사업	12
4	■ 동행(同行)	역사 대화	동행(同幸)을 위한 동행(同行)	7
5	■ 보동보동	평화, 인권	컬처 프리즘 (다양한 문화가 모여 빛이 된다)	12
6	■ 보듬이	평화, 인권	나비효과 (우리의 작은 활동이 사회에 파급력을 가져온다)	5
7	■ 보비광	인권	인권뉴스제작소 	12

#	동아리명	주제	프로젝트명	인원
8	■ 소꿌 (SOCAF)	인권	아띠	5
9	■ 예그리나	인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자 프로젝트 (함성 프로젝트) 	11
10	■ 유엔한국학생협회 (UNSA) 전남지부	평화, 인권, 역사대화	유학생 모의유엔회의 (Model United Nations) 	5
11	■ 지구인	인권	Refu지구인	10
12	■ 하람	인권	 바통(V.A.通): 시각장애인(Visually impaired)의 미술활동(Art)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화합(通)을 이룬다	5
13	■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인권	라오스 어린이에게 깨끗한 식수와 넓은 교실을!	15
14	■ UNAI ASPIRE 전남대학교	평화, 인권, 역사대화	D.I.Y 평화글방	5

유네스코
평화누리
블런디어

전체 활동

워크숍 ·
세계 평화의 날(9.21) 기념 온라인 캠페인 ·
활동공유회 ·

워크숍

가) 기간/장소 : 2017. 6. 29-30 /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 평화센터

나) 참가자 : 14개 참가 동아리 약 80명

다) 주요내용 : 유네스코 및 프로그램 소개, 강연, 레크리에이션, 팀별 프로젝트 발표, 협력방안 토의 및 교류활동

라) 특징 : 대표/부대표만 초청했던 이전과 달리 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약 80명의 볼런티어 참가자들이 모여 강연을 듣고 팀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눔

마) 일정

일시	프로그램	내용	비고
6월 29일 (목)			
10:30		명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유네스코홀 집합 (개별집합)	
11:00-11:20	개회	참석자 소개, 과학문화본부장 인사말	
11:20-11:50	오리엔테이션	유네스코 및 한위 소개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00	주제강연 1	'평화를 위한 역사'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
14:00-15:00	주제강연 2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인권 이야기'	이성택 국가인권 위원회 사무관
15:00-16:30	이동	명동 → 이천 평화센터	
16:30-17:00	평화센터 도착	방배정 확인 및 숙소 체크인	
17:00-17:30	나눔의 시간 1	아이스브레이킹	
17:30-18:30	활동 공유 1	프로젝트 발표	5개 팀 (팀당 10분)
		[17:00-17:50] ①UNAI ASPIRE 고려대, ②나그리다-F, ③지구인, ④네꿈내꿈, ⑤꿈나눔 [17:50-18:00] 위 5개팀 질의응답	
18:30-19:30		저녁 식사	
19:30-20:45	활동 공유 2	프로젝트 발표	6개 팀 (팀당 10분)
		[19:00-20:00] ⑥보비광, ⑦예그리나, ⑧소꿈, ⑨하람, ⑩보동보동, ⑪보듬이 [20:00-20:15] 위 6개팀 질의응답	
21:00-22:00	나눔의 시간 2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의 밤	참가자 간 교류

일시	프로그램	내용	비고
6월 30일 (금)			
08:00-09:00		아침 식사	
09:00-10:00	나눔의 시간 3	사진 미션	주제: 평화
10:00-10:40	활동 공유 3	프로젝트 발표	3개 팀
		[10:00-10:30] @UNSA 전남지부, ③동행, ④UNAI ASPIRE 전남대 [10:30-10:40] 위 3개팀 질의응답	(팀당 10분)
11:00-12:00	특별강연	'평화와 넬슨 만델라'	주한 남아공 대사관
12:00-13:30		점심 식사	
13:30-14:30	종합 토론	향후 계획 & 협력방안	
14:30-15:00	정리	평가지 작성 및 정리	
15:00-16:30	서울 이동	이천 평화센터 → 명동	명동 도착 후 개별 해산





“유네스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서로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고 더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교류할 시간은 다소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한 팀 한 팀 다른 팀들의 활동 상황과 내용을 듣고 피드백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타 팀원들의 피드백과 조언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 7월 18일에 대해서도 몰랐었다.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넬슨 만델라와 평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감정과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주변인과의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고, 공동점으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해보려 한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나눔의 시간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친해지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른 팀들과의 교류나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참가자 소감 중 발췌〉

세계 평화의 날(9.21) 기념 온라인 캠페인

가) 기간 : 2017. 9. 19-25

나) 목표 : 빅워크(bigwalk) 플랫폼을 이용한 걸음 기부 100,000는 달성

- *눈(NOON): 캠페인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어플 유저들이 걸음을 통해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단위 (10m 당 1눈 적립)
- *설정된 목표 눈이 달성되면 기부 공약(현금기부, 물품기부, 행동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집행

다) 대상 : 평화누리 볼런티어 참가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

라) 내용 : 세계 평화의 날 기념 평화인식 제고 및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 홍보

마) 결과 : 목표의 3.5배 성과 달성 후 우수활동팀 6팀 선정하여 리워드 (소정의 상금) 전달완료



활동공유회

가) 일시/장소 : 2017. 9. 23. / 유네스코회관

나) 참가자 : 13개 참가 동아리 약 90명

다) 주요내용 : 동아리별 활동내용 전시, 활동결과 보고, 상호 피드백 교환, 향후 협력 및 활동 방안 토의

라) 일정

9월 23일(토)	프로그램	내용	비고
10:30-11:00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 자유롭게 도착하여 등록 및 전시 준비	
11:00-12:00	활동전시회	참가 팀별 자료 전시/안내	
12:00-13:00		점심식사	
13:00-13:20	여는 시간	사무총장님 격려말씀	
13:20-14:40	활동 공유 1	팀별 활동 결과 공유 보비광, UNAI ASPIRE 고려대, 나그리다-F, UNAI ASPIRE 전남대, 보듬이, 예그리나	팀별 총 10분 부여
14:40-15:00		휴식	
15:00-16:20	활동 공유 2	팀별 활동 결과 공유 소꿈, 하람, 보동보동, 보듬이, 꿈나눔, 네꿈내꿈, 동행	팀별 총 10분 부여
16:20-16:30		휴식	
16:30-17:00	닫는 시간	'세계 평화의 날' 기념 캠페인 중간결산 및 평가지 작성	





유네스코
평화누리
보ランティア

팀별 활동보고서

꿈나눔 ·
나그리다-F ·
네꿈 내꿈 (Dreaming Nepal) ·
동행(同行) ·
보동보동 ·
보듬이 ·
보비광 ·
소꿈(SOCAF) ·
예그리나 ·
유엔한국학생협회(UNSA) 전남지부 ·
지구인 ·
하람 ·
UNAI ASPIRE 고려대학교 ·
UNAI ASPIRE 전남대학교 ·

꿈나눔



프로젝트 명	72초 배려 드라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김수연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	대표
2	한창희	송실대학교	기계공학과	부대표
3	최재희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팀원
4	서진우	송실대학교	전기공학부	팀원
5	황효상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팀원
6	김민주	송실대학교	자율전공	팀원
7	김재현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팀원
8	이호영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팀원
9	조대훈	송실대학교	기계공학과	팀원
자문위원	이진환	송실대학교	봉사센터	자문위원

활동분야

- 평 화 ▣ 상호 존중과 관용 증진(배려)
- 인 권 ▣ 노인 인권 존중 및 인식 개선

결과보고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곳을 보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이유, 즉 자리를 양보할 필요성을 못 느낀 이유를 저희 팀은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가진 청년들의 노인 분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영상의 한 편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고, 이에 대해 ‘한 마디’씩 하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SNS의 파급력이라는 장점을 살려, 영상 제작과 홍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네 명을 인터뷰 형식의 영상으로 담아, 그들의 생각이 활동을 함으로서 변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은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의 총 3편으로 구성하여, 편마다 각각 다른 활동을 통해 노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접한 다른 청년들이 영상 속 네 명의 청년들과 같이 노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며, 그 이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을 위한 배려를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 3편의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마음과는 다르게’입니다. 앞서 든 예시처럼 버스에서 노인 분들에게 자리양보를 하지 않은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양보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또한 노인 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잘 움직이지 않고 힘든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청년들이 노인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노인 체험’의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직접 노인이 되어봄으로서 노인 분들의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통해 노인 분들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은 ‘그날이 온다면’입니다.

‘노인’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영상 속 네 명의 청년들은 ‘노인’에 대해 다소 부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노인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을 ‘대상화’하여 보고 있었던 네 명의 청년을 통해 ‘노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상입니다. 즉 ‘일반적인 노인의 모습’과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의 차이의 깨달음을 통해 노인을 ‘대상화’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대상화 : 어떠한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함)

세 번째 영상의 제목은 저희 팀 프로젝트 명과 같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노인 분들의 일자리,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SNS 스타’와 같이 당연히 청년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노인 분들의 직업이 되어가고 있음을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노인 분들이 청년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접하고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에 포스터, 팸플릿, SNS 이벤트로 홍보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속한 숭실대학교 내부 여기저기에 포스터를 붙였고, 따로 부스를 만들어 팸플릿을 나눠주는 등 숭실대학교 학생들에게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배려’로 2행시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배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이벤트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 수는 세 편을 합쳐 총 약 800회라는 직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SNS 이벤트 활동은 끝났지만, 팀원들의 각 과마다의 홍보는 9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계속 만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편의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면서 처음 해보는 활동이었던 저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친숙하지 않았던 카메라 다루기부터 처음 만져보는 동영상 프로그램까지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영상의 컨셉 잡기가 제일 난관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스타일의 영상은 편집 기술과 연기가 필요했고, 많은 고민 끝에 컨셉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긴 회의시간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영상 제작이라는 난관이 저희 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글과 그림을 많이 다루지 않는 학과의 팀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 팀원 포스터 제작, 영상 시나리오, 영상 속 이미지 등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추가팀원을 모집해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소 어색했지만, 그 분들의 도움덕분에 영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새로운 활동은 저희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었고, 이러한 활동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활동 계획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도전이었고, 팀원들과 더욱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저희 팀원들이 영상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영상으로는 확인이 잘 안되지만, 노인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청년들의 입장이 되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담고 싶은 말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영상 편집기술의 부족으로 영상에 많은 것을 못 담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며 쓰지 않았던 영상도 너무 많았고, 최대한 깔끔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포기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활동사진



| 노인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 신발끈 묶기



| 노인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 지하철 노선도 읽기



| 노인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 물병 뚜껑 열기



| 노인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 일직선으로 걷기



|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



|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



| 노인 체험복 입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



| 촬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 부스 설치하여 팸플릿 나누어줌



| 페이스북 이벤트

나그리다-F



프로젝트 명	Become a feminist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이진행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대표
2	송하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부대표
3	차영심	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영상
4	김해진	가천대학교	금융수학과	사진
5	김제완	한밭대학교	창의인재학과	기획
6	김민정	한밭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기획
자문위원	박재범	워밍코리아	x	자문위원

활동분야

인 권 **▣** 페미니즘, 여성인권, 성평등

결과보고서

활동 목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다워'지길 바랍니다.

각자의 성이 갖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 '너'와 '내'가 서로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인정하고 지켜 봐 주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무분별한 성 차별적인 단어의 사용을 연구, 토론행보고 캠페인을 실현해 봄으로써, 대학생의 시선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고찰하고 자기다움에 대해 행동으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

여성인권 및 성 평등과 자기다움으로 큰 틀을 잡고, 그 속에서 팀원들과의 독서 토론 및 영화, 토론회, 영상클립을 이용한 스터디진행, 설문지 조사,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대학생 연합 동아리와의 합동 스터디, 단어 재조명 캠페인, 무비토크콘서트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 스터디 :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치마만다 은 고지 아디치에 저)' 와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저)'을 구입하여 각자 책을 읽은 뒤, 팀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해보니 자기 때부터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문제들, 대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단톡방 사건, 성별로 고정되어 있는 상품 색, 학창시절을 거치며 느꼈던 남녀차별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나의 활동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단어에 대한 민감도 및 페미니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설문지는 성별과 나이, 단어에 대한 민감도, 이제까지 본인이 경험하였던 성차별적인 일들, 페미니즘 혹은 성차별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인권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었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여성인권 관련 토론회나, 전문 기관 주관 세미나, 영화 gv시사

회 등에 참여하며 스터디를 이어나갔습니다.

독서토론과 설문지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 내의 구성원과 다양한 연령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면, 전문기관 주관 세미나나 토론회, 영화 시사회는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페미니즘 적인 사고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잡아놓은 방향성이 다양한 성 평등 전문가 분들의 피드백과 조언으로 인해 더 깊어질 수 있었고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성 평등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전달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단어 재조명 캠페인 : 여성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스터디를 하고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받아 보니, 오래전부터 성별에 따른 역할 구별이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부터 당연히 되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단어를 보고 특정성별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조명해야 할 단어 4개(얼굴마담 / 외 자가 들어간 단어들 / 맘충 / 김어사)와 속담 4개 (기왕이면 다홍치마 /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 /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집안이 망한다)를 정하고 해당 단어를 캡슐 안에 넣었습니다.

7월에 신촌과 연남동 일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캡슐 속 단어를 뽑게 한 뒤, 해당 단어가 왜 성차별적 단어인지, 이 단어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Become a Feminist X 나그리다 X 유네스코' 가 적혀진 스티커와 배지를 배부하며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는 캠페인과 페미니즘에 대한 부드러운 사고 촉진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이 오프라인 캠페인은 나그리다 및 나그리다-F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이후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생되었습니다.

3. 무비토크콘서트 :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려 했으나, 공통된 연결고리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월 유니브엑스포에 함께 참여한 대학생 연합영화동아리 씨네필링이 다양성 영화를 보고 스터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영화'라는 소재를 연결고리로 삼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최종 프로젝트인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월 19일 날 진행된 무비토크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약 두 달 전부터 매 주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영할 영화와 장소, 상영순서, 토크콘서트를 이끄실 전문가 및 사회자, 협찬 및 프로그램과 전체 진행 등을 여러 회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나그리다-F의 주도로 진행되었지만 회의 하는 과정에서 영화라는 소재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한편, 협동과 상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일 날에는, 명동 유네스코 세계시민학교에서 '히든피겨스'를 상영하였고 찍는페미를 결성

한 세분 중 한 분인 박효선 감독님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소재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한국양성평등위원회, 씨네21, 커널스 팝콘, 장비에서 각자의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물품들을 후원해주셨고, 약 4~50명 가량의 관람객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한국사회에의 페미니즘에 대해 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의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과 및 어려웠던 점

많은 사람들이 여성인권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어재조명 캠페인과 무비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놀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뿌듯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도 그 동안 저희도 몰랐던 반대편 성별의 고충과 올바른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성 평등으로 가려면 남,녀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나? 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설문지 제작 및 전체의 과정을 통해 담혀있는 사고가 아닌 대상을 열어 놓고 볼 수 있는 자기다움과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의 프로젝트는 저희가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 할 때 가졌던 자기다움과, 한국 사회 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부드러운 시각 확립이라는 컨셉을 달성하기에 충분했으며 20대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람들에게 여성인권과 성 평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당당한 표현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다른 팀보다 특히 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팀이라 그런지 다함께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주 2회 이상의 회의가 필요하였는데, 팀원들의 개인 일정들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는 한계가 생기는 경우도 존재하여 스카이프를 통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사람은 각자의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의 전 날 까지 올려놓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아무래도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니 서로의 의견에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소재 자체가 여성 인권이다 보니 토론과정에서 팀원 중 남녀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회의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나 오해도 공감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고, 더 단단한 팀워크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에 더 꼼꼼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함께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 소감

아마 혼자라면 다양한 일들을 직접 기획해보고 실행하는 과정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를 언급하며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잦아 아예 관련된 말조차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나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고, 그것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팀원들 중 몇 팀원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여성인권 관련 이야기를 하면 비아냥거리며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그 친구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하나의 뜻으로 뭉쳐 스터디를 하고, 캠페인 및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나와 다른 타인의 사고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 평등은 사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큰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거운 부분에 있어 대학생인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연구하고 부딪혀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결과를 떠나 많은 것을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이나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캠페인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타 동아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머리로 몸으로 여성인권과 자기다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아주 값진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믿고 다방면으로 도와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덕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행보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오프라인으로도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활동사진

페미니즘 시각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2017. 5. 20 토 - 5. 21 일

관람료 7000원 (인디스페이스 멤버십, 신디오, 칩메이 회원 6000원)
 장소 독립영화진흥원 인디스페이스 (서울극장 내)
 문의 DMZ국제다큐영화제 인디스페이스 031-936-7381 02-738-0366 dmzdocs.com indiespace.kr

관심 있는 아가씨를 # 여성감독 코스를 # 흥미유일인 대담

상영시간표

2017. 5. 20 토요일	2017. 5. 21 일요일
<p>16:30 그녀들의 점심시간</p> <p>대담 구재희 감독, 이지현 <양남> 10만 송이 <행동> 사회 한소현 <인디스페이스> 사우재영</p> <p>19:30 난입으로 삶을 엮다</p> <p>대담 임경희 감독, 김경옥 <양재광화문구소 유치살롱> 대포 사회 강유기람 <여미> <일독></p>	<p>개회 역사</p> <p>대담 김보람 감독, 정창희 <세란> <물론 제2차 여파> 사회 손정화 <여미> <가림> <일독></p> <p>버블 패밀리</p> <p>대담 미안지 감독, 천주희 <세란> <물론 제2차 여파> <가림> <일독> 사회 박메미 <DMZ 국제다큐영화제></p>

| 페미니즘 시각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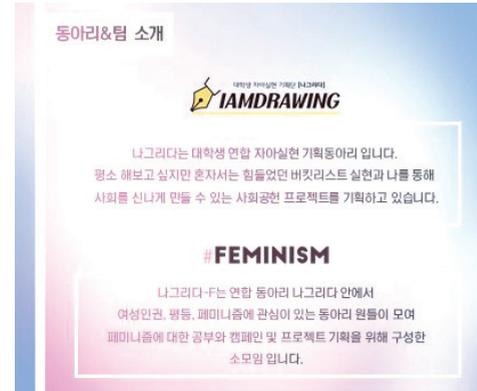
| 페미니즘 시각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참여 인증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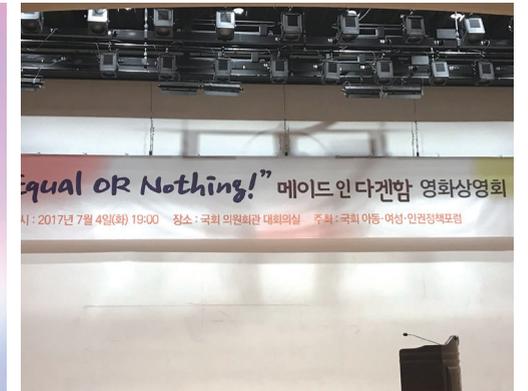
| 나그리다씨네핑링 페미니즘 합동스터디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참여 인증샷



| 유네스코 중간보고회(워크숍) 참여 참여 피피티 (소개 슬라이드)



| 국회 아동 여성 인권포럼 주관 토론회 및 페미니즘 영화 감상회 참여 사진1



| 국회 주관 페미니즘 영화감상회 참여 사진2



| 나그리다 제작 Become a feminist 굿즈(뱃지)



| 단어재조명 캠페인 1



| 단어재조명 캠페인 2



| 무비토크콘서트 현장 사진1



| 무비토크콘서트 현장 사진2



| 무비토크콘서트 현장 포스트잇 캠페인 사진



| 무비토크콘서트 협찬물품 (씨네21,창비,앳나인필름,커널스팸콘 후원)

네꿈내꿈 (Dreaming Nepal)



저희 '네꿈 내꿈'은 네팔 아동 교육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청년 단체이며, 대지진 이후 목격 한 네팔의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의 보장에서 나온다는 신념 아래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네꿈내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후원금으로 교구와 도서를 마련하여 겨울 현지 봉사에서 직접 네팔 다당, 초가운 지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꿈내꿈은 2017년 9월 25일까지 75일간 진행되는 다음 스토리펀딩의 리워드를 제작하기 위해 이번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에 지원하였고 지원금으로 펀딩에 참여하신 모든 후원자들에게 드릴 리워드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명	클라우드 펀딩 '네팔 아이들의 책장에 5천권의 책' 리워드 제작 사업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이지은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대표
2	유지민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부대표
3	여자영	(졸)경희대학교	철학과	팀원
4	정찬희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팀원
5	민지혜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팀원
6	최선헤	경희대학교	철학과	팀원
7	박새라			팀원
8	이예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팀원
9	김세연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팀원
10	장은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팀원
자문위원	우대식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지구사회 봉사단	자문위원

활동분야

인 권 ▣ 네팔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

결과보고서

< 활동 목적 및 세부내용 >

넛넛넛넛넛은 '네팔 아동의 교육권 증진'을 목표로 네팔 현지 학교 5곳에 2017년도 도서관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스토리 펀딩'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고, 펀딩 리워드 제작비용을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넛넛넛넛넛넛의 활동 세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펀딩 콘텐츠 준비 및 업로드와 (2) 펀딩 리워드의 구상 및 제작입니다.

(1) 2017년 7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넛넛넛넛넛넛은 '네팔 아이들의 책장에 5천 권의 책을'이라는 제목으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펀딩 플랫폼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약 세 달의 기간 동안 총 11편의 스토리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사회의 현 주소와 아동들의 교육·인권 실태에 관한 생동감 있는 스토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 목표액 100만원을 빠른 기간 내에 달성하였고 현재는 최대 목표액이었던 250만원에 근접한 모금액(9월 12일 기준 2,029,000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회차 별 주제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화	네팔 대지진 2주기 "책'길만 걷고 싶어요" -네팔의 사회구조적 모순 및 지진 이후 재건 과정
2화	밥이나 책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현지 활동가 파견 사업 당시의 활동 소개, 도서가 필요한 이유
3화	네팔 아동들의 인권 현황 -잔존하는 카스트 제도와 조흔 풍습 등 네팔 아동 인권 침해 실태 보고
4화	네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현지 활동가들이 들려주는 네팔 학교 에피소드①
5화	"오늘 수업 선생님은 나야, 나" -현지 활동가들이 들려주는 네팔 학교 에피소드② + 네팔 국기 소개
6화	네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2016 넛넛넛넛넛넛 네투워킹 파티 소개와 '수잔 샤키야'씨의 강연 내용
7화	2015년 네팔 대지진의 참상 -네팔 대지진 당시의 상황과 지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들

8화	네팔 대지진 2년 후 -대지진 발생 2주기, 현재 네팔의 상황과 현지 사회에 필요한 것들
9화	벼랑 끝에 선 네팔 소녀들 -네팔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악습, 그리고 진정한 해결 방안
10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네팔의 교육제도와 내부 문제점들, 열악한 교육 환경
11화	-후원금으로 구매할 도서의 종류와 그 쓰임, 관리 방안 (예정)

(2) 펀딩 리워드는 팀 내부에서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결과, 활용도가 높고 완성도 있는 디자인의 '파우치'와 '스트랩 키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네팔 현지와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엽서 세트, 네팔에서 직접 들어온 수공예 팔찌와 다이어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넛넛넛넛넛넛이 직접 디자인한 두 개의 리워드(파우치, 키링)에는 넛넛넛넛넛넛의 영어 명칭 'Dreaming Nepal'과 활동 취지를 담은 'Your Dream is My Dream'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네팔의 상징색 중 하나인 파란색으로 디자인되어 리워드를 수령하게 될 후원자 분들께 네팔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제작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① 제작할 리워드 물품 종류 논의 - 후보군 확정
- ② 물품 별 대략적인 단가 조사 및 리워드 물품 최종 확정
- ③ 물품 별 수량 논의 및 확정과 업체 조사
- ④ 리워드 물품의 사이즈 논의와 그에 따른 업체 별 단가 조사
- ⑤ 물품 사이즈와 업체 최종 확정
- ⑥ 리워드 물품 디자인 논의 - 대략적인 컨셉과 색, 문구 확정
- ⑦ 디자인 시작 및 업체와의 지속적인 컨택
- ⑧ 완성된 디자인 피드백 및 세부 내용 수정
- ⑨ 최종 디자인 확정 및 업체 제작 의뢰
- ⑩ 리워드 물품 수령 및 확인

디자인 팀원들과 전체 팀원들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제작된 리워드는 '완성도 높다'는 담당 PD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 펀딩 페이지 내 수많은 후원자 분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과 및 어려웠던 점, 참가 소감 >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저희의 도서관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도서지원금을 위한 카카오

스토리 펀딩의 경우 종료를 15일 가량 남겨둔 지금, 처음의 목표금액이었던 1,000,000원의 203%인 2,029,000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이 펀딩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께 보내드릴 리워드를 처음의 계획에 맞게 디자인, 제작하여 완성품들이 배송준비 중입니다. 결과 보고 동영상에서 제작과정 및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1) 우선 펀딩에 필요한 글을 연재하는 팀원들의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편의 연재 글을 써야 했고 '현장봉사 후기공유'와 '정확한 사실 전달'사이에서 중요순위를 두고 고민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온전히 연재 글과 제목으로만 흥미를 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저희의 신념을 지켜내는 일은 저희의 시간과 노력을 더 요하게 만들었습니다.

(2) 담당 PD님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표금액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PD님과 저희의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PD님은 가시적인 펀딩 성공률 상승과 무료후원권의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초반에 200만원으로 설정되어있던 저희의 목표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길 원하셨고 저희는 고수하길 희망했습니다. 결국 100만원으로 낮추게 되었고 이는 아직까지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리워드 제작에 있어서는 이번 년도에 많은 종류가 추가 되다 보니 디자인을 맡은 팀원이 제작업체와 수차례 내용을 확인하고 디자인 초안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런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팀원의 디자인 초안과 제작업체의 완성본의 차이가 나타나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즐거웠고 뜻 깊었습니다. 팀원들의 긍정적인 소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원금을 보조 받은 덕분에 저희가 펀딩 리워드를 더욱 더 완성도 있게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1박2일 워크숍 또한 저희 단체에게 뜻 깊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방향성 또는 형식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시고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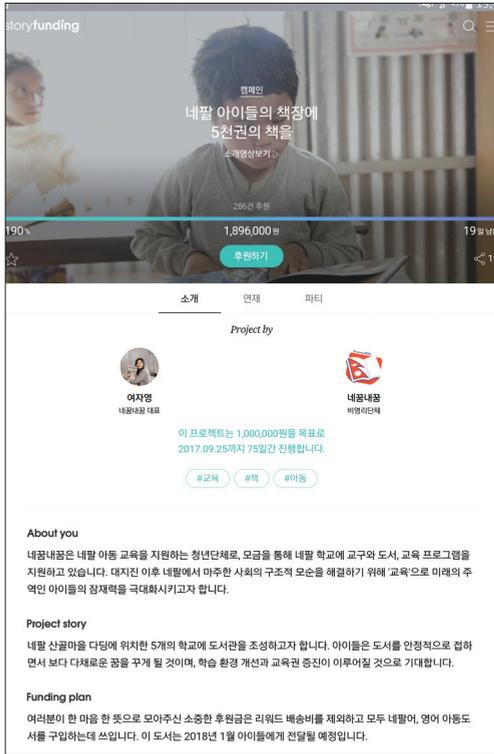
| 매주 화요일 임시총회



| 리워드 디자인 작업



| 평화누리 볼런티어 워크숍



다음 스토리 펀딩 진행



리워드 제작(파우치) 완료



리워드 포장 및 배송 작업

동행



프로젝트 명	동행(同幸)을 위한 동행(同行)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황인규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대표
2	김아영	성신여자대학교	독일어문,문화학과	부대표
3	곽도영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팀원
4	이현정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팀원
5	황의진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팀원
6	박지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팀원
7	차지예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팀원
자문위원	한미라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자문위원

활동분야

역사대화 ▣ 범사회적 역사대화

결과보고서

저희는 역사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가 모여서 ‘동행을 위한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행’이라는 팀입니다. 저희 팀은 유네스코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의 선후배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고등학생 때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때의 기억이 좋아서 비슷한 활동을 찾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프로젝트’를 찾게 되어 팀을 꾸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역사관련 머천다이즈 제작’, ‘역사 바로 알리기 팸플릿 제작 및 배치’, ‘역사 슬리브 제작’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알리고, 더 나아가 범사회적으로 역사대화를 진행해보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사업 중 ‘역사 바로 알리기 팸플릿 제작 및 배치’ 사업은 안타깝게도 여건과 사정 상 취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관련 머천다이즈 제작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최근 머천다이즈를 제작해 홍보하는 활동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따와서 머천다이즈를 제작해 알리는 활동을 하고, 판매 및 기부를 하려고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로, 슬리브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품입니다. 때문에 슬리브를 통해서 홍보하면, 더 큰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역사 슬리브 제작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슬리브와 머천다이즈에 들어갈 디자인에 대해 고민이 깊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인물을 해야 할지, 조명받지 못한 인물로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할지 등의 고민을 갖고 오랜 시간 생각을 해왔습니다. 결국,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을 고르게 되었고, 디자인도 외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저희 팀이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은 끝났지만, 머천다이즈를 어떤 것으로 할지가 또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가죽 팔찌, 핀 버튼, 휴대폰 링 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끝에 활용도가 높고, 가격도 적당한 에코백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것들이 정해지고, 에코백을 제작을 했습니다. 본래, 저희는 이 머천다이즈들을 판매해 우리나라를 홍보하시는 분께 수익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만, 판매에 대한 어려움, 또한 기부할 단체 혹은 개인을 찾기 힘들고,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듭해, 물품을 직접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에 남아공대사관과 같이 진행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게 된 ‘삼동 소년촌’에

에코백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삼동 소년촌 쪽에서 흔쾌히 승낙해주셨고 저희도 기분 좋게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슬리브 제작 사업은 머천다이즈 사업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 편입니다. 다만, 제작 이후가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슬리브를 배부할 카페 컨택과정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카페들은 따로 계약한 업체들이 있기에 슬리브를 받아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인카페보다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많기에 저희 슬리브는 설 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명동에 위치한 유네스코 회관 12층에는 베롱나무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슬리브를 배치하고 싶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도움덕분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베롱나무 카페 이외에도, 혜화의 위치한 카페 ‘만타’의 도움으로 슬리브를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약 5개월간의 활동내용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비록 아주 작은 활동을 했고, 적은 수의 사람만이 저희가 만들어 낸 결과물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적은 사람들 역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모여 많은 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 안에서 담론이 형성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기에 저희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활동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머천다이즈 사업입니다. 물론 슬리브 사업 역시도 뜻 깊은 사업이었지만, 슬리브의 경우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닿는 물품이고,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물품입니다. 하지만, 머천다이즈 사업에 경우, 아직은 어린 친구들에게 전달된 물품이기에, 친구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에코백을 메고 다니면서 주위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약 5개월의 활동기간동안 기쁘기도 하였지만,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겪었던 아쉬웠던 점들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를 위해서 결성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고, 지속적으로 같이 해온 파트너들이 없기에 섭외하는 것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뜻 깊은 활동들을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실행할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사진



| 컵홀더 안중근 디자인



| 에코백 유관순 디자인



| 배롱나무에 기부한 슬리브



| 카페 만타에 기부한 슬리브



| 에코백과 슬리브

보동보동



프로젝트 명	컬처 프리즘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김수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대표
2	고은진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부대표
3	김수빈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4	김재경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5	김지현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6	장지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7	이정인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8	방하영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9	박다인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10	박상민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11	양비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12	조수진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자문위원	강수진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자문위원

활동분야

평 화 ▣ 상호 존중과 관용 증진
인 권 ▣ 인권의식증진

결과보고서

배경 및 목적

간호학 중의 하나로 다문화 간호를 배우던 중 모든 국가 간, 민족 간의 전쟁이나 시위, 차별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을 International이 아닌 Global이라고 해석할 만큼 우리는 커다란 지구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간의 소통이 더 늘어날 것이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동보동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한 문화 간의 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생각들이 저희 동아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아가 소외계층 아동들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늘 하던 경험이 아닌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다문화센터 아이들에게 구성원들의 전공을 살린 재능나눔(보건교육)을 통해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교육하여 지역보건에 이바지하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감염예방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활동 내용 및 성과

1) 내당지역아동센터

‘정해진 시간과 지원금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 사회에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 올수 있는 교육 대상은 누구일까?’하는 고민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이 주를 이루며 부모의 부재로 인한 방임에 노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 교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당아동지역센터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이었기에 연필과 종이를 이용한 이론식의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식의 교육을 제공해 주고 싶었습니다.

① 6월 23일 : 내당지역아동센터(전통놀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6월 23일에 이루어 졌습니다. 팀원들의 입장에서조차 처음으로 그들과 만나고 교육을 제공해주는 시간이었기에 이 날을 위해 많은 연습과 준비

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첫 번째 다문화 교육의 주제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쉽고 그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나라의 전통 놀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에 수많은 오락이 난무하는 요즘,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또래 친구들과 전자기기 없이 서로 부딪히며 놀면서 전자기기가 아닌 무언가에 흥미를 느껴보기를 바랐습니다. 전통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문화 인식 개선으로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어떤 문화, 환경, 가치관이 이러한 전통놀이를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 교육하면서 문화에는 우위가 없으며 다 같이 존중받고 존중해주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론 교육이 끝나자마자 공원에 나가 팀원들과 아이들이 섞여 팀을 나눈 후 중국의 투호놀이, 일본의 다루마오토시, 한국의 윷놀이 총 3가지의 전통놀이를 가지고 미니 올림픽을 시작했습니다. 공원이라는 외부의 넓은 공간에서 활동 하는 것이 수월하고 자유로웠던 만큼 팀원들에게 있어서는 ‘혹시나 우리가 한눈파는 사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평소에는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놀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센터로 다시 들어 가야할 시간임에도 전통놀이를 계속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반응이 매우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각 나라의 전통놀이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아이들은 웬지 어두울 것만 같고 소극적일 것 같다는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깰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② 7월 25일 : 내당지역아동센터(요리교실)

7월 25일, 아이들과 두 번째 다문화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 체험’으로 여러 나라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체험이었습니다. 조리 중에 칼과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주의를 기울이며 아이들과 함께 일본의 오코노미야끼, 멕시코의 타코와 한국의 궁중 떡볶이를 요리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 때와 같이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론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요리가 어떤 문화와, 기후 환경, 가치관을 거쳐 만들어 졌는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스크린에 수업자료를 띄워놓고 수업을 할 때도 매우 집중하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질문에 대답해주었고 요리하는 내내 스스로 해보고 싶다면서 손을 번쩍 드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이라는 소재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체험하기에 접근성이 좋고 다문화라는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 먹는 두 번째 활동은 다른 나라를 알아가기에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③ 8월 25일 : 내당지역아동센터(다문화페스티벌)

8월 25일에는 내당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아이들에게 이전에 교육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주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주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교육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미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기에는 내당지역아동센터는 너무 공간이 협소했기에 더 넓고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구대학교로 초대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활동을 위해서 일본, 베트남, 스위스, 이탈리아 총 4나라의 마켓과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색칠하는 부스, 환전부스, 퀴즈부스를 설치하여 실제의 마켓을 재현해보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일본, 베트남, 스위스, 이탈리아의 인사말, 문화, 지폐, 에티켓과 더불어 페스티벌의 규칙을 설명해주고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마켓부스에 가면 먼저 그 나라 인사말로 인사를 해야 하고 그 나라의 지폐로만 물건과 전통음식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나라의 화폐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퀴즈부스에 가서 앞서 교육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풀고 환전부스에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그림을 직접 색칠해보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보는 다양한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타코야끼, 베트남의 시원한 음료, 스위스의 풍뎉, 이탈리아의 피자과 더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위주로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나게 쇼핑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선물해주는 저희의 또 다른 목적을 이룬 것 같아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켓 놀이가 끝난 후에는 사용했던 지폐를 자세히 보면서 각 나라의 지폐에 나와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그 인물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공부하고 체험했던 전통 음식 역시 같은 맥락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이번 마켓놀이는 다른 활동보다 더욱 활동적인 놀이였기에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아이들에게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이번 다문화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이들과 저희 보통보통 모두가 다양한 나라에 대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또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대해 배웠지만 저희는 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한 물건도 사서 양 손 가득 챙겨 마지막까지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며 다문화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팔달초등학교(다문화교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저희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기 위한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저희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교실을 방문하여 직접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만나 소통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① 6월 24일 : 대구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손 씻기&구강관리)

대구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예비 의료인인 간호학도로서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교육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 씻기는 각종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쉽고도 간단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100세까지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세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구강관리는 중요합니다. 이에 보통보통은 6월 24일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4~6세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손 씻기와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속 캐릭터를 이용하여 ‘주토히아’ 인형극을 했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들이 잘못된 양치질, 이에 좋지 않은 습관 등으로 인해 치과를 찾아가는 장면을 끝으로 마무리하며 재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양치질의 중요성을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치아모형과 칫솔로 올바른 칫솔질을 보여주며 저희가 준비한 양치 세트를 이용하여 다 같이 직접 양치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칫솔질을 능숙하게 하기에는 아이들의 나이가 많이 어렸고 양치 거품을 바닥에 흘리거나 양치 자체를 거부하는 등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머님들과 팀원들이 함께 자녀들에게 양치질을 도와주며 교육했습니다. 이후 교실에 있는 세면대를 이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꾸민 공병에 손 세정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형극을 하거나 공병을 꾸미는 등 유아의 수준에 맞춘 체험을 통한 교육이기에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어머님들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지속적인 위생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 나누어드리니 더욱 기뻐하셔서 한 번으로 이 만남을 끝내기에는 아쉬웠습니다.

② 7월 6일 : 대구 팔달초등학교 다문화교실(손 씻기&심폐소생술)

대구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녀온 후에 저희는 다문화가정의 편견과 오해에 대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생겼고, 또 다른 나이대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구 팔달초등학교 다문화교실과 연계 해주셔서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와 심폐소생술(CPR)&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자의 이름과 취미를 말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후에 학교에서 빌린 심폐소생술 모형으로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형과 실습에 많은 관심을 보이

며 흥미롭게 따라하는 모습에 저희는 더욱 신나서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과 소통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치자마자 바로 뷰박스(손에 묻어있는 세균을 볼 수 있는 손 씻기 체험 교육용 기구)를 통해 평소 우리의 손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관찰하고 난 뒤, 스티커와 매직을 이용하여 손 세정제를 담은 공병을 같이 꾸몄습니다.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자신이 만든 공병을 자랑하고 그 공병에 담긴 손 세정제를 서로 뿌려주면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뷰박스로 손을 관찰하여 손 씻기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부끄러워서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한 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다가가서 말을 걸었지만 자꾸 거부해서 아쉬웠고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공병을 만들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다들 밝아서 예뻐 보였고 저희는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활동 소감

저희 보동보동은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지만 매년 다른 주제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활동도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내당지역아동센터장과 아이들도 3번이라는 적은 횟수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아쉬웠었고 아이들 외에 더 많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이름표, 센터에 기부하고 온 전통놀이 기구들을 다시 가지고 놀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보동보동과 함께한 다문화 체험 교육에 대한 좋은 추억을 되짚어보고 다문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 또한 변화되어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때 이 활동이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간호학과만의 전공을 살린 재능기부를 하며 작은 도움을 주고, 또 그들과의 만남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노력하면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는 달리 너무나도 밝고 명랑하며 늘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을 보며 모든 일을 겪어보기도 전에 그들의 이미지를 판단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활동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 문화 간 소통의 열쇠를 만들 기반을 마련했다고 장담하며 주변 사람들부터 다양한 연령대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타파시킬 수 있도록 힘을 예정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할 것이며 보동보동의 컬쳐프리즘(다양한 문화가 모여 하나의 빛이 된다) 활동에 참여하고 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활동사진



| 일본 전통음식인 오꼬노미야기와 멕시코의 전통음식 타코를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실력 탓에 모양은 별로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만든 요리 때문인지 맛있었습니다.



| 아이들이 조물조물 거리며 일본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 협소 했지만 그렇기에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마지막이었던 활동에서 아이들이 마켓놀이 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 여러나라의 전통의상을 색칠하고 있습니다.



| 마켓놀이를 위해 나누어준 여러 나라의 화폐를 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통놀이인 '다루마토시'를 하고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쳐서 제거하는 게임으로 집중하며 열심히 팀을 위해 조각을 쳐내고 있다.



| 아이들의 구강관리 교육을 하고 있다. 설명이 어렵지 않도록 약간의 손장난을 섞어서 설명했고 그 덕분에 습득이 오래가는 모습을 보였다.



| 올바른 손씻기를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유지와 감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가 중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부모님까지 교육에 참여해주셨다.



| 아이들의 교육이 끝난 뒤 시범 지원을 받았는데 1등으로 손을 번쩍 들고 한 친구가 앞으로 나왔다. 준비해간 차야모양에 직접 칫솔질을 해보고 서투르지만 설명해준대로 기억했다.



| 팔달초등학교 다문화교실 학생들이 뷰박스를 이용해 손에 있는 세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 팔달초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성공적으로 3개팀의 전통놀이 올림픽을 끝냈다. 넓은 공간에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울까 걱정스러웠지만 집중하고 같이 참여해주어 생각보다 수월히 진행되었다.



| 지역 아동센터의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하여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교육 때 들은 중국의 전통놀이인 '투호'를 하는 모습이다.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 인형극과 아이들의 구강관리교육이 끝나고 아이들은 간식시간을 가지고 부모님들께는 교육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언어, 문화 등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대로 건강관리 정보를 얻지 못하였을 그들에게 우리는 천천히 구강관리와 손청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 마켓놀이에서 스위스 부스에 온 아이들이 풍류에 관심을 가지고 사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가 선생님과 함께 일본 부스에서 물건을 사려고 일본어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보듬이



프로젝트 명	나비효과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박유정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회장
2	나하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회장
3	홍지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총무
4	안희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회원
5	이하은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회원
자문위원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문위원

활동분야

평 화 ▣ 공존과 화합, 소통
인 권 ▣ 차별철폐

결과보고서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94%가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내 특정 지역에 중국 동포가 밀집하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과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사드배치, 미세먼지, 외국인 범죄율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보듬이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였다.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특히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또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 적응력과 사회성 증진을 통한 공존의식과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자세 함양을 목적으로 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중국 동포 가정의 초등학교 자녀, 그리고 한국인 가정의 초등학교 자녀 각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구로구에 위치한 화원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모집, 장소 제공, 예산, 보조 인력 등의 도움을 주로 받았다. 프로그램 첫 주차에는 자기를 나타내는 명찰을 직접 만들게 하고 스스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활동적인 게임을 하며 대상자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잘 몰라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한 위생&환경 교육을 실시했다. 분리수거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우리의 시범을 본 후, 직접 쓰레기를 분리수거해보도록 하였다. 분리수거 교육 이후에는, 위생 관리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직접 비누를 만들기도 하였다. 3주차에는 중국의 홍빠오 문화를 알아보고 직접 제작하였으며, 그 안에 넣을 '나만의 화폐 만들기' 활동과 다도 문화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그 다음 주차에는 꽃빵을 직접 요리해서 먹어보는 중국 전통 음식 체험을 실행했으며, 마지막 날은 한복을 대여하여 입고서 우리나라 대표 고궁인 경복궁을 탐방하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매회기마다 과정과

성과를 위주로 기록하는 보고서와 프로그램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인식개선 영상을 만드는 일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이신 최혜지 교수님과 남양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님께 조언을 구하였다. 이후 몇 번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영상 소재가 탄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다음은 '나비효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첫째, 중국동포 어린이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 증진이다. 중국동포 어린이들은 경복궁 탐방 및 분리수거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기본 생활 예절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접하고 학습하며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한국 어린이의 중국 동포에 대한 거부감 감소이다. 매 주 토요일마다 총 5회 진행되었던 '나비효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어린이는 중국동포 어린이를 낯설어하고 피하기보다는 점차 배려하고 협동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나비효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이다.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소학회 '보듬이'의 정체성 실현이다. '보듬이'는 사회복지 전공소양을 갖추어 현장 경험을 쌓아가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결성된 소학회이다. '나비효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구로구'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보듬이의 설립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다섯째, 다문화와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이다.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및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 활동을 하며 어려웠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비효과' 프로그램의 실제화와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한 지역선정이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동포 어린이와 한국 어린이 지원자를 모집해야만 했기에 타 지역에 비하여 중국동포 밀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즉,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단합을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중국동포가 이미 협력하여 잘 살아가는 지역보다는 그렇지 못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만 했다. 이를 위하여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한 전문 통계 사이트나 논문을 참고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등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인터뷰하기도 하였다. 둘째, 연계기관 모색과 설득의 과정이다.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조사하였지만 우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믿고 지원해 주는 기관 또는 단체를 찾아야만 했다. 보듬이의 목적, 목표를 작성한 간략한 보고서와 활동 제안서를 작성하여 여러 기관과 일일이 접촉하여야 했으며,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해야만 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협상이 결렬 되어 포기하고 싶다는 돌발적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발휘하여 연계기관을 찾는 데 힘썼다. 셋째, 연계기관과의 협업이다. 연계기관 내의 한정된 장소

와 한정된 장소 대여 가능 시간 등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의 활동을 매 주 글로 작성하여 보고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연계기관과 보듬이와의 신뢰감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서로의 의견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연계기관에서는 '나비효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정 금액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자원(차량지원, 현장 학습 시 아동 전문가 파견 및 동행서비스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넷째,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다. 중국 동포 어린이와 한국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화합과 조화, 협동이 중심 되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했다. 서로의 다름이 부각되어 이질감을 느끼기 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누구나 기분 좋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위해 연계기관 관계자의 자문을 얻기도 하였으며, 담당 교수님과 그의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였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종결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번거로움과 포기하고 싶었던 장벽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 완수하였다. 모든 인격체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한 듯 싶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우며,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묵인하기 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것은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활동사진



| 아이종구 1주차: 아이스브레이킹&라포 형성



| 아이종구 2주차: 분리수거 체험



| 아이종구 2주차: 비누 만들기



| 아이종구 3주차: 나만의 화페 만들기



| 아이종구 4주차: 중국 전통음식 꽃빵 만들기



| 아이종구 5주차: 한복 체험&경복궁 탐방

보비광



프로젝트 명	인권뉴스제작소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유현승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표
2	최유선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대표
3	박예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4	주제현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5	류창선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6	김지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7	김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8	안태승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9	장자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10	홍지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11	임경택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12	양나타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원
자문위원	권혁남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자문위원

활동분야

인 권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홍보

결과보고서

저희 보비광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과동아리인 보도사진연구회, 네오비전21, 광고 PR학회 세 동아리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보비광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비추는 빛(光)’이라는 뜻입니다. 나비와 나방, 나비와 나방은 둘 다 나비목에 속하며 굳이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나비는 날개를 접고 앉고, 나방은 날개를 펴고 앉는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비를 아름다운 곤충으로 생각하는 반면, 나방은 해충으로 여기고, 퇴치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사람을 보는 시선도 나비와 나방을 바라보는 시선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소외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영상, 사진, 홍보 등을 통해서 겨우내 차가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보비광 활동의 주목적은 인권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있어 주 타겟층이 될 수 있는 20~30대의 연령층에게 큰 효과를 가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뉴스를 제작해 정기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인권 뉴스 제작소’ 페이지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해 국내외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보비광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뉴스로 제작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뉴스의 형식은 카드뉴스, 영상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페이스북 이용자라면 누구나 보비광의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뉴스의 소재는 보비광의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열린 인권을 위해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을 담아 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보비광 팀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이 되는 5월에는 인권 관련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의 운영을 위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봉사동아리 ‘천리향’과 연합을 했으며, 사이버 인권침해나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판넬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에는 전주 동물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 부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스에서는 인권에 나무에 손도장 찍기, 열기구 모형 제작하기 등의 체험활동과 아동인권과 관련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열기구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하늘 높이 띄워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이며, 아이들 스스로 열기구를 색칠하고 장식하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인권의 나무에 손도장을 찍으면서 아이들은 자신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서약을 했으며,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7월의 활동은 전주시 서노송동 예술촌 조성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봤는데, 이 사업은 전주시가 성매매의 집결지인 선미촌을 인권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인권과 예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보비광 팀이 직접 시청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성에 대한 인권 의식 탈바꿈을 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영상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했을 때 다른 게시물들보다 홍보 효과가 높았습니다. 8월에는 '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보비광의 일원인 '보도사진연구회'는 매년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네스코 보비광 팀에도 접목시켜 보비광 팀의 활동 내용들을 사진으로 제작해 '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액자를 설치해 인권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인 현재는 팀 자체의 활동은 종료되었으나 사업 종료 후에도 저희는 '인권 뉴스 제작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비광 동아리를 유지하며, SNS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인권 관련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 관련 활동 이외에도 국내에 있는 무형, 유형 문화재를 알리는 것으로서 페이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팀원들의 참가 소감입니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에 참여해, 인권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위해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존중과 권리를 그저 누리기만 했던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겹씩 한 층씩 쌓아올려진 건물 위에 붉게 반짝거리는 경고등도, 저 아파트의 계단 복도에서 빛나는 불빛들도, 도로 위에 보이는 전조등까지도 누군가의 눈과 같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난 얼마나 많은 이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인권'의 가치가 정립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고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것 같지만 논쟁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노력들도 모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사람들에게 잊힐 수 있는 가치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비광이 했던 인권 뉴스 제작, 인터뷰, 사진전 등등 그런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한 번 더 새기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활동을 마무리하며 '더 잘 할 걸.'하는 후회가 땀들기도 합니다. 익숙해질 때쯤 끝이 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끝나는 아쉬움은 있어도 시작함에 있어 후회는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최유선)

우리는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을 통해 인권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인권 관련 이슈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주위의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사회를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인권 유린이나 침해의 현장으로 뛰어가 행동으로써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보다 균형적인 시각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평등과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영원한 선물이자 숙제인 '인권' 그리고 생소한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 이제 우리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정택)

보비광을 통해서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 삶에서 인권이라는 단어의 뒤에는 "따위"라는 수식어 정도가 붙었습니다. "인권 따위"는 현재의 상황이나 성공, 행복 등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지금의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추구하여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비광 활동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보고 느꼈던 것은 인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안일하게 외면하고 있었던 인권을 위해서 누군가는 불철주야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었고, 내가 그저 의무감에 몇 번 공유했던 인권뉴스의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삶에서 직접 맞닥뜨린 문제였습니다. 간이 사진전과 보비광의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촬영하면서 인권을 향한 시선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고, 보비광의 이름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덧 내 자신을 먼저 비추고 있었음을 활동이 끝나가는 지금에서야 어렵듯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장자원)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인권관련 프로젝트라는 생각에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차 구체화되면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보비광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매일 인권 관련 뉴스링크를 업데이트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속에 인권의 문제가 녹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 포털사이트 메인에 걸린 대부분의 사건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문제부터 시작해서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삼성 이재용 부사장 재판 등 끔직한 사건뿐만 아니라 사

소한 사건 역시도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을 알지만 몸소 실천하기 어렵다고들 생각한다. 흥미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순간 인권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다. (주제현)

팀원들의 이러한 참가소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 항상 재미있고 좋았던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작한 부분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권과 인권 보호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홍보하는 것이 꽤나 어려웠습니다.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주가 되다 보니 단어를 선택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제작 능력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쁜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인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꽤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가 늘고 좋아요 수가 늘수록 뿌듯했다. 직접 카드뉴스와 영상을 제작해 제작하고 뉴스를 업로드 하면서 느껴지는 성취감 또한 대단했습니다. 우리 보비광의 활동은 9월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동안 했던 작은 활동들은 앞으로 삶의 올바른 척도가 될 것이며 한결 같은 인권 알리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끝이 나지만 보비광이라는 단체의 정신과 행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권이 사소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철저히 지켜지는, '인권 따위'는 모두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활동사진



| 전주동물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부스행사



|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워크숍



| 전주시 선미촌 시청 관계자 인터뷰



| 보비광 사진전



| 학교 내에서 인권 관련 부스 운영



| 인권 관련 카드뉴스 제작



| 인권 관련 카드뉴스 제작

소꿈(SOCAP)



프로젝트 명	아띠 성교육 프로그램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강정은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팀장
2	임승철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팀장
3	김민아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팀원
4	이동준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팀원
5	김현진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팀원
자문위원	류청한	예술아동가족상담센터장		자문위원

활동분야

인 권 ▣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 인권

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회는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공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학회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면서 아동 인권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였으나 최근 본교의 SNS 페이지에 올라오는 성병, 성관계에 대한 고민과, 특히 자주 언급되는 SNS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성과 관련된 고민들이 비단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들도 데이트 폭력, 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성 교육이 실질적인 측면이 부족하며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에 저희는 유네스코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성 인식과 성적 자기 결정권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계획,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활동을 정한 후에는, 구체적인 성교육을 계획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성교육에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할지 정하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정한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기에는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인식, 지식에 대한 수정과 교육을 계획하였으며 2회기에는 임신과 피임 도구에 대한 수업으로 실제적 참여와 체험을 위해 성교육 키트를 구입하여 콘돔과 생리컵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기에는 현재 연애를 하는 학생들과, 앞으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폭력의 범위,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주제인 '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고, 학교별로 연간 계획에 따라 성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저희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를 어려워하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학교를 벗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낙후 지역의 청소년 복지관, 주민 센터, 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취약한 고아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만큼 성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을 구해보던 중 다행히 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 5월중에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소재 명지고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3주에 걸쳐 계획한 3회기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첫 프로그램 진행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진행이 미숙한 점, 학생들의 참여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 지식이 조금이라도 풍족해지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에 프로그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저희 스스로의 개선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프로그램의 경험을 바탕으로 찾은 다양한 개선점은 저희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아쉬움과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성 지식 수준에 맞는 교육 난이도의 수정, 여러 기관의 피드백을 통한 성 교육 내용의 수정과 신뢰성 확보, 학생들의 참여 유도 방법의 필요성 등의 다양한 개선점을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저희 성교육의 신뢰성과 내용의 충실함,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연세대학교 성평등 센터와 연락 하여 자문을 받았습다.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교육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고, 현재 진행되는 여러 성교육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학생 성교육 진행자로서 어떤 점을 더 강조하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지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고, 불필요한 내용은 교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성 지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난이도와 대상 학생을 수정하였습니다. 첫 프로그램의 경우, 고 3학생이라 입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생각보다 성 지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적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대상을 재신청하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기존 교육에서 접할 수 없는, 대학생으로서 경험했던 성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교육의 참여 학생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 인권뿐 아니라, 교육 인권 향상의 목적으로 멘토링 경험이 전문한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추가로 진행하여 저희 교육에 대해 더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나니 처음 저희가 목적으로 하던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고 다음 학교에서 더 잘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신을 바탕으로 승문고등학교에서 1회기, 마지막으로 광양고등학교에서 2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각 학교의 회기는 학교 사정과 저희 일정에 맞게 합의하여 조절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저희의 포부와는 달리, 학교의 섭외에서부터 난관을 겪었고 프로그램의 계획, 실제적인 진행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새로운 학교를 찾아 교육을 진행한 이유는 저희가 진행한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희의 교육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의 진행이 미숙하고 저희가 계획한 목표만큼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성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수정해줄 수 있었던 것에 크게 만족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 뿐 아니라 진행한 저희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내, 외부적인 갈등과 더불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활동이 쉽지는 않았지만, 몇 개월간 장기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은 스스로에서 성취감과 내가 한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활동은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보고자 하는 바람도 생기곤 합니다. 한 학과의 작은 학회에게, 이러한 큰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인권분야에서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과 성과를 이뤄내는 아동가족학과 학회 소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며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한 저희 조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활동사진



| 교육 계획 전 회의



| 구매한 성교육 키트



| 명지고등학교 1회기



| 명지고등학교 2회기 (콘돔사용 참여)



| 광양고등학교 2회기



| 광양고등학교 2회기 (학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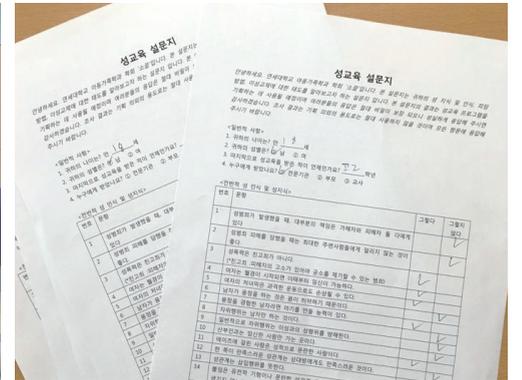
|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자문



| 승문고등학교 1회기



| 광양고등학교 2회기 (멘토링)



| 설문지 및 팸플릿



| 광양고등학교 1회기



| 광양고등학교 1회기 (콘돔사용)

예그리나



프로젝트 명	함성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이상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표
2	장희승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대표
3	최민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송윤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정다정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	이보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	서영욱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	김준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	이소연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	최예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	박지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문위원	주은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문위원

활동분야

인 권 ▣ 아동 인권 개선

결과보고서

경기대학교 예그리나가 준비한 함성프로젝트의 활동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베이비박스 인식개선 UCC제작을 통해 사람들의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는 것,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서명운동 캠페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신고 의무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하루 빨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봉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아동들이 존중받아야 할 자신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서명 캠페인을 3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서명 캠페인은 병원비로 인해 가정의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을 이끌어내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경기대학교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캠페인의 취지, 목적 그리고 내용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으며 흔쾌히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경우 팀 자체적으로 기획, 구상, 진행 그리고 평가를 한 캠페인으로 여전히 만연한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구상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판넬을 제작하여 진행하였으며 판넬 구성은 아동학대의 종류, 신고의무자에 대한 설명,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역시 경기대학교 내에서 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대략 1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동인권교육의 경우 총 6회기로 진행을 했으며, 매 회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피드백을 받고, 다음 회기 때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회기의 경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인권교육 전 아이들의 인권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6회기동안 함께 할 아이들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회기는 간단한 동화를 통하여 UN아동권리협약 중 발달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기는 UN아동권리협약 중 보호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회기는 UN아동권리협약 중 참여

권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와 배울 권리를 배우고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회기는 타인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누구의 권리가 중요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6회기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교육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권퀴즈를 진행하고, 총 6회기 동안 함께 활동했던 사진을 전시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인권교육을 팀원들과 함께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활동은 뭐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팀원들 또한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목표로 했던 아이들의 인권의식 고취와 안전의식의 함양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진행 회기가 6회기라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던 프로그램이었고,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양질의 교육을 준비 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의 호응 유도와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 회기 거듭할 때마다 중점을 두고 기관의 선생님들께 물어보며 아이들의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동 인권교육 시 진행한 인권감수성 설문조사는 4개의 이야기, 총 4문제로 구성되었으며 사전사후 검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크게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없지만 향상된 모습을 보인 아동이 있었습니다. 아동 인권교육은 영상이나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하는데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아 모든 아동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권감수성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 전과 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있어 교육 후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모습을 보인 아동이 있음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소감

이상원(대표) : 이번 평화누리 불린티어 예그리나 팀의 대표로서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했다. 우리 팀은 모집당시에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을 고려하여 팀원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활동을 계획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나 다양한 경험이 뒷받침 되어 활동을 이어나갔던 것 같다.

장희승(부대표) : 평화누리 불린티어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 진행 그리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4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부족한 점을 알게 되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최민재 : 우리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유네스코 평화누리 불린티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와 팀원들이 직접 기관도 연계하고 사업도 진행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활동이 되었다.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활동을 통해 보람과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량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송윤섭 :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자는 것을 모토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가장 뜻 깊었던 부분은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실행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였다.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는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역량의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져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부족함에 비해, 아이들과 프로젝트 대상자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남고 많은 것들을 기억해 주어서 큰 보람이 남기도 하였다. 타인을 돕는다는 것이 대상자 뿐 아니라 돕는 사람 본인에게 또한 값진 경험을 남겨준다는 것을 다시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보영 : 학생의 신분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경험이 흔한 경험이 아닌데, 평화누리 불린티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것이 매우 뜻 깊고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다. 특히 아동인권교육은 실제 기관에서 진행하고 아이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오가고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다. 약 4개월간의 불린티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했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다.

정다정 : 이번 유네스코 불린티어를 통해, 아동인권의 신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회가 남달랐다. 특히, 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들에게 직접 인권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심어줄 수 있어 좋았다.

서영욱 : 서로간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11명의 사람들끼리 '인권'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통해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은 경험 해보지 못한 참신한 활동이었다. 처음 과 선배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이상적 활동의 모습으로 꿈을 꾸었고, 한 개월 한 개월 계획들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아 오면서 학생이라는 위치에선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역경을 헤쳐나간것이 아닌가라는 뿌듯함이 들기도 했다. 유네스코 불린티어라는 활동 명목 하에 팀원들과의 소통과 단합력이 활동의 완성을 이룩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윤 : 유네스코 평화누리 불린티어를 참여하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베이비박스 인식개선 UCC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주사랑 공동체에 방문한 후 목사님 인터뷰를 통해 유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에 대해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모든 활동을 준비하며 팀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함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 같아 뿌듯했고 감사했습니다.

이소연 :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팀원들과 함께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아동인권교육으로 아동의 특성, 기관의 분위기, 그리고 1~6학년의 폭넓은 연령대로 인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했습니다. 6회기를 마친 후 아동인권과 존중에 대해 생각보다 잘 이해하여 퀴즈를 스스럼없이 풀어내고 발표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준영 : 아이들에게 인권을 주제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인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지였다. 1회기에서 6회기까지 인권교육을 하면서 복지관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니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흥미도 갖게 되는 모습이 보였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아이들이 교육이 마지막이라 아쉬워하는 모습과 나중에 또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유사한 프로그램에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예준 :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라는 게 어떤 도움을 주는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활동의 하나인 아동학대부분과 같이 대중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깨워주는 활동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기획부터 마지막 인권교육 6회기까지 대략5개월 동안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유네스코에게 감사드립니다.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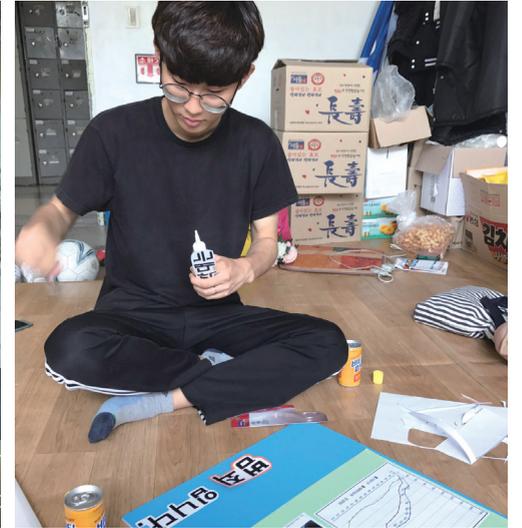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캠페인 진행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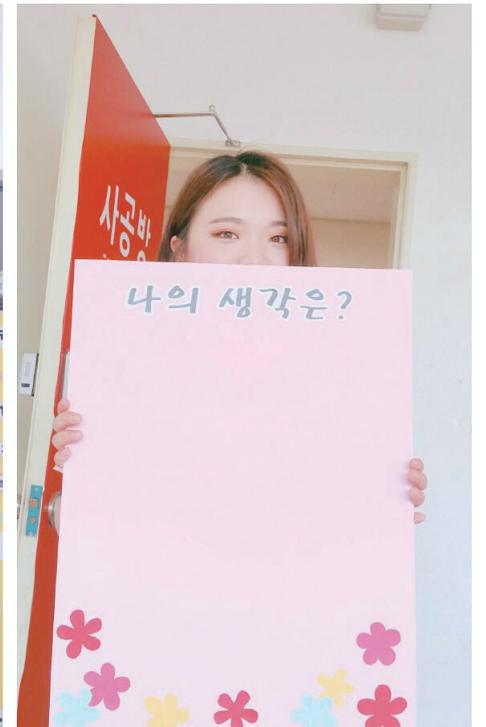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판넬 제작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판넬 제작



| 완성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판넬



| 완성된 판넬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준비중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캠페인 판넬 설치 한 모습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참여 시민들의 생각



| 시민들이 생각한 아동학대란?



| 인권교육 준비를 위한 사전 회의



| 인권교육 1회기(인권나무 만들기)



| 자신이 만든 인권나무에 대해 설명하기



| 권리나무를 그리는 아이들



| 인권교육 4회기



| 인권교육 4회기 진행 모습



| 3회기 알을 찾아라 게임



| 감정카드를 활용한 게임



|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 4회기 아이들 작품



| 4회기 아이들 작품(꽃으로 꾸민 식탁에 맛있는 과자가 있는 것을 표현)



| 6회기 진행한 사진전



| 교육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모습



| 감정카드를 이용한 연극



| 자신의 생각을 선생님과 함께 발표하는 모습



| 감정카드를 이용한 연극



| 교수님 간담회



| 베이비박스 인식개선 ucc 제작

퀴즈 풀고 인권지킴이 되자!

QUIZ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 받아야한다.

QUIZ 2.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할 없다.

QUIZ 3.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줄 의무가 있다.

QUIZ 4. 아동은 아직 어리므로 부모의 종교를 따라야한다.

QUIZ 5. 아동권리란?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해 배려이다.

QUIZ 6.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권리이다.

QUIZ 7. 인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된다.

QUIZ 8.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의 권리도 소중하다.

QUIZ 9. 아기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외국인 친구도 모두 인권을 지고 있다.

| 아동인권교육 총 6회기 마무리 후 인권 관련 퀴즈

경기대학교 예그리나 전민장

인권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

-2회기 (7월 6일)-

본 설문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원사항 : 1,2학년 3,4학년 5,6학년

1. 오늘 진행한 교육이 재미있었나요?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2. '나는 000예요' 활동 후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나요?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3. '알 올리기 게임' 활동 후 '안전'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4. 다음 시간에도 인권 교육에 참여하고 싶나요?
ok

5. 오늘 진행한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오늘 알올리기 게임을 했는데 혼자서 눈을 뜨고 가면 한 발짝도 못가는데 2명에서 하나끼리 더 쉬웠다

| 아동 인권교육 만족도 조사지

자녀교육

정훈이 부모님은 정훈이가 공부하는 안 하고 전자오락에만 빠져 있어서 걱정이예요.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문구점에 있는 전자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느라 집에도 늦게 오고 용의 대부분을 거기에 쓰고 있다. 부모님께서 정훈이에게 여러 번 타일렸지만 나아진 점 없다. 정훈이는 이제 다시 안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벌써 몇 번째이다. 부모님께서 한번 딱정한 발을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훈이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순간에 찾아가서 한번 심하게 때려주려고 한다.

● 위 이야기와 관련하여 다음 두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때려서라도 정훈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어야 한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2.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신체를 때려서는 안된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 부모님이 정훈이를 찾아가 심하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1. 정훈이의 나쁜 습관이 고쳐질 것이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2. 정훈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 아동인권교육 인권감수성 설문조사(사전검사)

자녀교육

정훈이 부모님은 정훈이가 공부하는 안 하고 전자오락에만 빠져 있어서 걱정이예요.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문구점에 있는 전자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느라 집에도 늦게 오고 용의 대부분을 거기에 쓰고 있다. 부모님께서 정훈이에게 여러 번 타일렸지만 나아진 점 없다. 정훈이는 이제 다시 안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벌써 몇 번째이다. 부모님께서 한번 딱정한 발을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훈이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순간에 찾아가서 한번 심하게 때려주려고 한다.

● 위 이야기와 관련하여 다음 두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때려서라도 정훈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어야 한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2.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신체를 때려서는 안된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 부모님이 정훈이를 찾아가 심하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1. 정훈이의 나쁜 습관이 고쳐질 것이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2. 정훈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 아동 인권교육 만족도 조사지

유엔한국학생협회(UNSA) 전남지부



활동분야

평 화 ▣ 세계이슈별 평화실현 방안

결과보고서

■ 활동목적

- 국내, 외 청년들의 지속적이고 유익한 '국제청년 간 교류의 장' 마련
- 한국을 방문한 유학생과의 '평화활동'으로서 각국 민간외교단으로 사명추구
-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연합(UN) 모의회의'의 프로그램의 도입
-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청년-유학생 교류활동'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국제이슈, 세계시민 교육, 평화토론' 등의 콘텐츠 개발

■ 세부 내용

1) 인문학 통일강연회

- 일 시 : 2017년 5월 19일 (금) 16시
- 장 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소강당
- 내 용 :
 - 평화실현에 대한 논의에 대해 국제적 이슈이자 한반도 평화의 화두인 북한의 인권문제,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통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청년들이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한 강연 진행
 - 딱딱하고 어려운 관점에서의 '통일'이 아닌 '인문학'적인 요소를 통한 이해하기 쉽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강연회 진행
- 성 과 :
 - 기존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인 개념과 지식에서 벗어나 평화실현을 위해 '통일'이 기여하는 것과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변화, 한반도의 이점 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됨
- 어려웠던 점 :
 - 홍보의 부족과 더운 날씨, 수업이 거의 없는 금요일 오후였다는 점 등으로 강연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부족했음

2) 모의유엔회의

- 일 시 : 2017년 6월 24일 (토) 15시
- 장 소 : 전남대학교 복합문화공간 더뉴웨이브

프로젝트 명	유학생 모의유엔회의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차대헌	전남대학교	바이오에너지	팀장
2	문찬영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	부팀장
3	강담아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팀원
4	오지윤	전남대학교	바이오에너지	팀원
5	김서현	전남대학교	멀티미디어학	팀원
6	정우경	동신대학교	물리치료학	팀원
7	양영준	조선대학교	에너지자원	팀원
8	최화진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	팀원
9	Olga	전남대 유학생	몰도바	팀원
10	Teak Wei	전남대 유학생	말레이시아	팀원
11	Julie	전남대 유학생	프랑스	팀원
12	Nazerke	전남대 유학생	카자흐스탄	팀원
자문위원	김정대	호남대학교	문화컨텐츠	자문위원

- 주 제 : 실질적 평화실현을 위한 성 평등의 실현방안
- 내 용 :
 - 국내·외적으로 화두로 떠오르는 '인권'과 '성 평등'에 대해서 각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과 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각 나라 실제적인 '성 평등' 모범사례, 피해사례 공유 및 전 국가적인 성 평등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대책에 대한 논의 진행(교육시스템, 경제구조, 종교적 문제, 사회구조적 문제 등)
 - 미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대한민국 / 총 10개국에 대한 모의유엔 진행
- 성 과 :
 - 모의유엔회의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유튜브, 도서, 논문, 참고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해주어 다채로운 의견이 제시됨
 - '한국'에 국한된 시야에서 벗어나 실제 각 나라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자국에서 겪었던 '성 평등'에 대한 모범사례, 피해사례를 공유해줌으로서 '성 평등'에 대한 문제가 다양한 원인으로서 기인되는 것을 더욱 느낄 수가 있었음
- 어려웠던 점 :
 - 각자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있고,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각자의 모든 이야기를 듣기에 시간이 부족함

3) 글로벌 네트워킹 파티

- 일 시 : 2017년 6월 24일 (토) 19시
- 장 소 : 전남대학교 복합문화공간 더뉴웨이브
- 내 용 :
 - 청년들이 이루어 낼 수 있는 '평화실현'의 첫 걸음을 '대화'와 '소통'과 '서로 간의 이해'라는 것에 착안하여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네트워킹 파티 진행
 - 버스킹, 디제잉 공연, 보드게임, 레크레이션, 코스튬플레이, 파티음식 등 유학생들과 거리감 없이 함께 대화하고 어울리는 시간 마련
- 성 과 :
 - 간단하게 준비된 파티였으나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한국학생들의 노력이 있어 상호간에 즐거운 교류의 시간으로 진행 됨
 - 자발적으로 공연과, 악기연주 등 기존의 수동적인 행사에서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파티로 진행

4) 유학생 대상 문화이해 프로그램

- 일 시 : 2017년 6월 26일 (월) 15시

- 장 소 : 광주대학교 백인관 컨퍼런스 룸
- 내 용 :
 -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각 나라의 오해와 편견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화(생활, 언어, 표현, 식생활 등)를 교육
 -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지 3개월 미만인 유학생 대상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 진행

5) 유학생 대상 문화이해 프로그램 (2)

- 일 시 : 2017년 7월 20일 (목) 15시
- 장 소 : 전남대학교 허브관 컨퍼런스 룸
- 내 용 :
 -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각 나라의 오해와 편견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화(생활, 언어, 표현, 식생활 등)를 교육
 -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지 3개월 미만인 유학생 대상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 진행
- 성 과 :
 - 아직은 낮은 한국 내 유학생생활에서 앞으로 접하게 될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여러 생활 습관들을 알려주어 유학생생활 정착에 도움을 줌
 - 한국인의 관용적인 표현(밥 한번 먹자)과 카카오톡, 버스 환승제도 등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만족도 있는 행사로 진행
- 어려웠던 점 :
 -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웠음

■ 참가 소감

- 계획하였던 '모의유엔회의'를 여러 회 진행하여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다양한 국제이슈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공통된 의견으로 주제선정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언어적인 문제, 참여 유학생들의 일정 상의 문제 등으로 본 프로그램은 1회로 끝난 것에 큰 아쉬움이 남았다. 대신 본 활동에 도움을 주신 광주의 각 대학의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유학생'대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셔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서도 연계해보았다.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국제이슈에 대한 회의와 토론은 '모의유엔회의'라는 콘텐츠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다른 이름으로서라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예정이다. 새학기를 맞아 함께하던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타지역 대학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하게 되어 새로이 유학생을 모집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세계관을 넓히고 각국 청년들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의 눈높이로서 이를 수 있는 평화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활동사진



| 5/19 인문학 통일강연회



| 6/24 모의유엔회의



| 6/24 모의유엔회의



| 6/24 글로벌 네트워킹파티



| 6/26 광주대-문화이해 프로그램



| 7/20 전남대-문화이해 프로그램

지구인



프로젝트 명	지구인의 나비효과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이승현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대표
2	류다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팀원
3	임희태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팀원
4	강민철	중앙대학교	화학과	팀원
5	박채린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팀원
6	배유림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팀원
7	신예빈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팀원
8	홍정수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팀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활동분야

인 권  환경난민에 대한 인식개선

결과보고서

저희 지구인 팀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환경보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환경동아리로서 교내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번 볼런티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활동 방향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지구에 대해서 과학적인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환경보호의 목적은 오로지 ‘지구의 과거 모습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환경보호의 구체적인 목표를 ‘인권’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지구인의 나비효과’로 프로젝트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룬다는 의미의 나비효과는 개인의 잘못된 행동 하나 하나가 모여 결국 다른 개인의 살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의미로 통하여 나비효과로 프로젝트 명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다시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겠다는 희망의 의미 또한 담아서 ‘지구인의 나비효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볼런티어 활동의 ‘인권’ 분야 중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난민의 인권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저희 팀원들은 ‘생각 외의 여러 종류의 기후난민이 존재하구나’, ‘우리 가까이에 기후 난민이 존재할 수 있구나’ 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나 둘씩 준비 했습니다.

저희 지구인 팀은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알 수 있었던 점입니다. 볼런티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후난민에 대한 큰 주제와 작은 주제들을 정하고, 또 활동에 쓸 판넬을 만들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기후난민을 비롯한 생물 종 다양성의 날 등 기존에는 몰랐던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환경 보호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 팀은 ‘알고 보니 우리는 환경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왔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오로지 쓰레기, 지구온난화, 물 부족 등에 대해서만 생각해왔던 저희 팀의 일면적인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보호를 해

야 하는 것뿐 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이 타인에게는 직접적이고 큰 피해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의 전달 내용 및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캠페인을 접하신 시민 분들의 다수가 ‘기후 난민’이라고 하면, 가라앉는 투발루의 주민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해주셨는데, 저희는 투발루 주민들만이 기후 난민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렸습니다. 저희의 캠페인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올해 6월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858,000명의 기후 난민, 5~6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모라에 의한 851,000명의 기후 난민 등 상상이상의 많은 난민의 존재를 알게 되셨고 근본적인 문제인 환경오염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기후 난민’에 대해 알리는 것 자체가 기후난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2017년은 자연재해가 많이 났다는 점에서 저희 활동이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청주,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생존을 위협받았는데 이는 저희로 하여금 ‘우리도 기후난민이 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캠페인의 방향도 조금 수정하여 ‘기후난민은 먼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일하는 법을 배운 점입니다. 피피티 만들기, 자료 조사 등의 역할 분담뿐 만 아니라 회계 관리, 외부 장소 섭외, 외부 업체와의 컨택 등으로 대외적인 역할을 나누어서 활동을 한 것은 저희 팀원들에게 이번 활동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확실치 않아 갈등도 많이 겪었지만, 활동이 마무리 될 즈음에는 그만큼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때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부서 간의 피드백이 원활해져 캠페인 활동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기에 많은 캠페인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어려웠던 것은 한글자료가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후난민의 수, 기후난민의 원인이 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영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번역하여 한국어로 된 설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추려 판넬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환경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캠페인 진행 초반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스쳐지나가셨고 흥미가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피드백 시간을 가질 때,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진과 도표를 판넬에 많이 사용하고, 키워드를 크게 적어 판넬을 제작하자고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다음 캠페인을 진행할 때 ‘2017년 상반기 발생한 난민의 수’, ‘2017년 1월~6월, 많은 이주민을 발생시킨 자연재해 순위’ 등의 지도와 도표를 이용해 가시성을 높이고 많은 사

람들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젠가 게임을 활용하여 게임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 분들이 기후난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의 마크로 뱃지를 만들고 배부하면서 저희 지구인의 목표와 긍지를 다시 새기며 많은 분들이 기후난민의 인권을 위한 환경보호에 앞장서실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팀원 12명의 시간을 모두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점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들 시간표가 다르고, 방학 때 고향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모두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료 준비팀, 캠페인 진행팀 등 역할분배를 하여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구인에 있어서 이번 2017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 즉 환경 난민의 인권을 알릴 수 있었던 굉장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은 저희 학교 학우들과 교직원 및 관계자분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환경 난민의 인권에 대해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단 올해의 활동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알리고 환경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는 지구인이 될 것입니다.

활동사진



‘생물 다양성의 날 및 기후난민 캠페인’ : 2017년 5월 29일
5월은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이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난민의 식량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캠페인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때, 이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고, 생물 다양성의 개념에 대해 퀴즈를 내어 중앙대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식목일’ 캠페인 : 2017년 4월 7일
4월은 ‘식목일’을 맞아 점차 잊혀져가는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일회용 컵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기후변화가 악화된다는 점을 캠페인의 주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카페에서 이미 사용된 일회용 컵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어 교내 학우 및 관계자 분들께 나눠 주었습니다. 함께, 기후변화의 악화로 인해 더 많은 기후난민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기후난민 캠페인’,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2017년 6월 10일
6월에는 교내에서 기후난민에 대한 직접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난민의 의미와 기후난민의 발생원인, 그리고 실태에 대해 교내 학우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젠가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젠가 나무토막 15개에 기후난민 및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일상행동들을 적어 게임에 참여하는 학우가 이 행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후난민 캠페인', 여의도 한강공원 : 2017년 9월 2일
 8월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기후난민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의 기후난민 캠페인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보충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기후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상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상징할 수 있는 와펜(예를 들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꿀벌, 지구의 사막화를 나타내는 선인장,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투발루의 야자수)을 구입하고 저희 팀의 마크를 뱃지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하람



프로젝트 명	V.A.通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설지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표
2	박다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대표
3	양수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총무
4	노예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PT 제작 및 아이디어 제공
5	전지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프로그램 기획
자문위원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문위원

활동분야

인 권 ▣ 시각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 통합 증진

결과보고서

'2017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에 참가한 하람 팀의 프로젝트명은 'V.A.通'이다. 'V.A.通'이란 '시각장애인의(Visual impaired people) 미술 활동(Art program)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通)을 도모한다'는 의미의 약자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4가지이다. 첫 번째, 예술(미술) 활동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의 미적 충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예술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킨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자신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주체 의식을 가진다. 네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4가지 목적을 통해 하람 팀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시각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사회 통합 증진'이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하람 V.A.通 프로젝트는 총 3가지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서울 시내 5개의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만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장소와 대상자들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관계자 분의 도움을 받아 한빛맹학교와 협력을 맺게 되어 교내의 1,2학년 학생들 8명과 함께 총 10회기(한 주 당 2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V.A.通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와 2회기에는 하람 팀과 한빛 맹학교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하람 팀과 학생들은 다과를 먹으며 좋아하는 음식과 가고 싶은 곳 등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소개 하였다. 3회기와 4회기에는 지끈과 각종 스티커, 부직포 제품 등을 이용하여 스케치북에 자신의 손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첫 활동이다 보니 학생들 중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꾸미는 것에 흥미를 느껴하였다. 5회기에는 우유팩 풀가위꽃이를 제작 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색종이를 찢거나 리본, 솜 모형 등을 만지고 붙이면서 촉감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고취시켰다. 6회기에는 색깔 찰흙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컵 꾸미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찰흙을 이용해 개성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컵에 자유롭게 붙이는 활동에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7회기에는 큐빅을 이용하여 팔찌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큐빅

구멍에 직접 실을 꿰어 팔찌를 만듦으로써 손가락의 미세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았다. 8회기에는 도깨비 마라카스를 만들어보았다. 색깔 찰흙을 반죽하면서 모양 틀로 예쁜 모양들을 찍어내고 그것을 만져보고 붙이면서 학생들은 모양에 대한 인지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9회기에는 수수깥 나무 만들기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부직포와 수수깥을 구별하고 자신만의 나무를 만들어나가며 자연스러운 촉각 훈련을 하였다. 10회기는 플레이콘을 이용한 액자 꾸미기와 마지막 회기를 기념하여 하람 팀이 준비한 엠보싱 동전지갑과 미니 선풍기를 증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빛맹학교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활동 이후 하람 팀은 교내에서 활동 사진전과 인식 개선 문구가 새겨진 100개의 파우치 증정을 기반으로 한 캠페인 'V.A.通 터치'를 진행하였다. 하람 팀은 교내 학우들에게 프로젝트의 의의와 과정을 설명하고 활동사진들을 보여주며 인식 개선 파우치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교내의 다른 학우들은 시각장애인의 문화권과 역량 등에 대해 환기하고 편견을 타파하는 계기를 가졌다.

다행히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 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전국 규모의 공모전 14팀 안에 선정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아이디어만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기획한 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다가 오기도 하였다.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크게 2가지였다. 첫 번째는 하람 팀원들 모두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장애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초반에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점이다. 실제로 초반에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동작이나 개념들에 대해 숙지하지 못 한 점이 가장 많이 아쉬웠다. 두 번째는 하람 팀원들 모두 행정 적인 업무나 기관 선택 등의 경험이 적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소통이나 행정 업무 등에 능숙하지 못 하였다라는 점이다. 다행히 여러 기관 분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프로젝트 기반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인 기관의 행정 시스템과 분위기를 알지 못해 어려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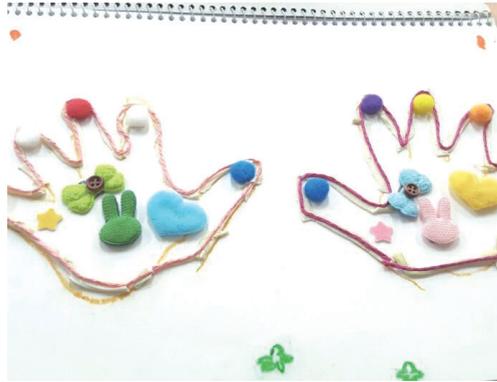
그렇지만 하람 팀원들은 공통적으로 V.A.通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시각 장애인의 문화권과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기르고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며 교내에까지 인식 개선을 진행하여 매우 뿌듯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하람 팀원들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빛맹학교 선생님 및 학생들, 교내 학우들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 하였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모습도 보였다. 동시에 팀원들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공신으로 서로를 꼽으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노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혹은 단일 기관의 노력들이 하나로 합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활동사진



한빛명학교 학생들과 하람 팀의 프로젝트 활동



한빛명학교 학생이 실제로 만든 작품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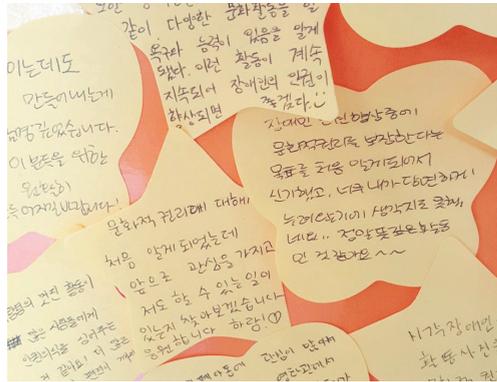
활동 사진들 및 인식 개선 캠페인 판넬



캠페인에 사용된 인식 개선 문구 파우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중인 하람 팀원들



캠페인 후 교내 학우 분들의 Feedback들

UNAI ASPIRE 고려대



프로젝트 명	라오스 어린이에게 깨끗한 식수와 넓은 교실을!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김진아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대표
2	YERIN LEE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대표
3	남가경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보팀원
4	박수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보팀장
5	조재언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총무팀장
6	서하림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사업팀장
7	이시현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사업팀원
8	이희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술팀장
9	한정민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총무팀원
10	이미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술팀원
11	유정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홍보팀원
12	심지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홍보팀원
13	강동렬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협동과정	고문
14	Glory Chidi Chijioko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학술팀원
15	JuYuong Wendy Cheon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술팀원
자문위원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국제학부	자문위원

활동분야

인 권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

결과보고서

UN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기간이 만료되고 이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전 지구적인 공동 이행 의제가 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지구촌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정부·시민사회 그리고 영리기업까지도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중대 과업이 되었다. UNAI ASPIRE는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표방하는 UN Academic Impact의 청년파트너로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이라는 대전제하에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육성하여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청년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오늘날, 청년단체인 ASPIRE는 오염된 식수로 인해 아동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지속적으로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교내 축제 기간과 지역사회 축제 기간을 활용한 옹호활동으로써 캠페인을 벌였다.

본 캠페인은 고대 학우들과 성북구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SNS 카드뉴스 공유, 스티커 앙케이트 조사, 스피드 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후원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는 굿즈를 증정하기도 하였다.

캠페인 수익금 전액은 UNAI ASPIRE 청년봉사단을 통하여 라오스 틴남마을의 교육 및 식수위생환경 증진에 활용되었다.

라오스 현지 활동은 크게 노력봉사, 교육봉사, 필드리서치로 이루어졌다. 노력봉사로 틴남 초중등학교의 화장실 2칸과 정화조 2동 건립·교실 내 실링팬 12대 설치를 하였으며, 교육봉사로 102명의 아동들에게 20개 예체능 교과를 현지어로 전달하였다. 또한 필드리서치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성장동력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6번(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다.

환경캠페인과 라오스 워크캠프 및 필드리서치는 기획목표에서 일맥상통하지만 사업의 환경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캠페인에서는 혼잡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점이 어려웠지만 팀원들의 재빠른 임기응변 덕분에 모금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었다.

라오스에서는 무더운 기후와 돌발 변수들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현지인 선생님들과 틴남마을 주민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다.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 하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하는 협동을 통해 마침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시민의식이 무엇인지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활동 소감문1. 인권-환경캠페인 부스체험팀장 조재언

“라오스 어린이에게 깨끗한 식수와 넓은 교실을!” 캠페인이 후원 목표치를 도달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참가자들 시각에서 캠페인을 준비해서가 아닐까 쉽다. 환경문제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다루어 직접 라오스를 방문하지 않았던 이상 경험하기 쉽지 않은 자연 환경 차이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라오스 통학시간과 학교 분포도와 같은 통계를 시각화하는 것과 동시에 퀴즈를 준비하여 현재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교육권에 비취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전달을 위해서 재미라는 요소도 빠트릴 수 없었다.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퀴즈와 통계 자료를 그림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만지거나 볼 수 있는 활동도 준비했다. 라오스의 오염된 물, 라오스의 정화된 물 그리고 한국의 정화된 물의 수질 오염 상태를 본 뜬 물을 물통에 준비하여 이 물에 무엇이 있을지 힌트로 여러 물질을 아이টে이프로 준비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맞추어 보도록 하였다. 라오스에서는 물이 정화되어도 한국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점을 확연히 볼 수 있게 하였고, 여러 아이টে이프로 수인성 질병을 포현한 아이টে이프로 재미를 불러와서 특히 관심을 모았다. 석회질이 있는 물을 어떻게 아이টে이프로 표현할 수 있을 지 까지도 논의하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

카카오 ‘같이가치’ 플랫폼을 통해 더 용이하게 후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다양하게 감사의 상품들을 준비하여 편리성과 즐거움을 참가자들에게 드렸다고 생각한다. 상품 하나하나에 선별부터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준비했기에, 갖고 싶다 혹은 예쁘다는 칭찬을 들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다. 당장 이번 방학 때 라오스 워크캠프가 진행되고, 현지 활동 사업비는 전액 후원금으로 진행되며, 워크캠프에 관한 결과보고를 후원자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점이 후원자에게 신뢰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는 성북구청에서 주최하는 2017년 성북구청 차 없는 거리 환경캠페인 담당부서에서 본 행사에 와서 부스를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는 초대를 받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도 활동을 진행하고자 참가하였다.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교내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말고사를 치른 바로 그 주 토요일이 행사 날이었던지라 다들 지쳐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고 대학생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 모두 힘을 내서 왔다. 환경 교육을 하는 선생님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초·중학

생 그리고 마실 나온 아주머니와 아저씨까지 관심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왔다. 한 명 한 명에게 설명을 맞춤형으로 전달했다.

참가자 중 두 명의 초등학생들은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부스 안에서 설명을 듣고 준비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놀았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와중에 아이들 안전을 고려해야 했기에 신경이 쓰였지만, 동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고마웠고, 이 하루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충분했다. 교내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비교했을 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서는 상대적으로 환경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친환경적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캠페인의 성공을 고생한 UNAI ASPIRE 고려지부 팀원들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게 돌리고 싶다.

활동 소감문2. 라오스 워크캠프 교육조장 남가경

라오스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교보재를 주문하고 교안을 작성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틴농 마을에 도착한 첫 날에 아이들이 낯도 가리고 말도 통하지 않아 걱정이 앞섰던 것도 떠오르고, 그렇게 시작한 교육 첫 날부터 설 새 없이 '까까!' '아짼!' 이라 부르던 아이들의 예쁜 눈들도 떠오릅니다. 그 때를 돌아보면서 많은 기분이 들었지만, 역시나 '조금만 더 잘해주고 올 걸' 이라는 아쉬움이 가장 큼니다.

이번 워크캠프는 틴농마을의 식수 위생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써 라오스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는 캠프의 A조 교육조장을 맡았고,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에서 다양한 캠페인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지에 대해서 많이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내 캠페인에서 학우들에게 라오스 식수위생 상황과, 라오스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보장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크캠프의 단원으로서 4월부터 회화에 필요한 기초 라오어를 배우고 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조장으로서도 현지 상황에 적용하기 쉬우면서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안을 구상하고, 라오어 스크립트를 7개 정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틴농 마을은 저의 예상과, 제가 준비한 것과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희 팀이 현지에서 필요하다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아이들의 수준과 교육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보재는 넉넉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부족했고, 다양한 나이가 모여 있는 한 교실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조교사를 맡았던 '친구 얼굴 그리기' 교안 진행 중에는 미술 교육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고 '친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현지 특성 활동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캠프 중에 최대한 단원들과 보완해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후에 진행한 '비눗방울 만들기' 교안이나 '곰 세마리 노래' 교안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착하기 전 현지 상황을 제대로 공부하고 갔다면 훨씬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도 큼니다.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각 교실마다 선풍기는 한 개씩 달려있었고, 교실에 형광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운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방학인데도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나오는 큰 초등학교에 화장실은 두 칸이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부족하여 교과서는 각 교실에 한 두 권이고, 현지에서 기본적인 교보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단원들과 힘겹게 땅을 파고 흙을 날라 화장실을 더 짓고 선풍기를 설치함으로써 그들의 환경에 도움이 되어 기쁘지만, 기본적인 교육에 필요한 환경도 갖추지 못한 학교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덕담과 게임' 하나라도 웃었고 수수깡으로 만든 팔찌 하나라도 행복해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꿈을 펼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캠프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점들을 다음 경험에 적용하고 보완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지 이해의 필요성과 현지 교육 경험은 앞으로 제가 해나갈 경험에서 실수를 줄이고 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제 역할을 고민하게 될 때 틴농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의 순수한 눈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조금의 도움으로 꿈을 키우고 사회를 발전해나간다면 그 아이들이 이 세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활동사진



| 고려대학교 교내 민주광장에 설치한 인권-환경캠페인 부스 전경



| 캠페인 홍보 활동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및 체험 물품



| 인권-환경캠페인에서 캠페인 굿즈를 통한 펀딩과정을 설명, 고려대 학우들이 열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



| 민주광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환경문제 퀴즈 및 참여활동과 펀딩에 대한 소개, 물 부족 원인 설명을 하는 모습.



| 환경보호를 위한 에코백 사용 장려.



|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한 중학생들 역시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모습.



| 고려대학교 교내 인권-환경캠페인 홍보 부스 안,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캠페인 굿즈, 에코백, 배지, 보물 등의 캠페인 굿즈가 모금에 대한 리워드로 제공됨.



| 성북구청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이야기 행사 인권-환경캠페인 부스, 캠페인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하루 종일 부스에 함께 머물렀던 초등학생 친구와 함께.



| 라오스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던 성북구 한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매.



| 라오스 워크캠프 준비 모임, 정기적으로 진행된 모임에서는 라오스 봉사활동 전 숙지사항, 라오어 수업, 교육활동 계획, 필드리서치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 라오스 틴둥 마을에서 워크캠프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필드리서치를 진행하였다.



| 라오스 워크캠프 노력봉사 모습. 워크캠프 기간동안 정화조 2동과 실링팬 12기를 설치하였다.(1,464,330 KRW 상당)



| 라오스 틴둥 초중등학교 학용품 기증 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



|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 수업이 끝나고 즐거운 라오스 아이들과 함께.



| 미술수업에 집중하는 라오 친구들.



| 캠프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라오스 어린이들이 평소 하지 못했던 미술, 과학, 체육, 음악놀이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 라오스 워크캠프 틴농 지역 아동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UNAI ASPIRE 전남대



프로젝트 명	Peace Maker			
팀원	이름	학교	학과	팀 내 직책
1	최다은	전남대	물리학과	대표
2	김지호	전남대	지역바이오 시스템공학과	부대표
3	조아현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팀원
4	박다정	전남대	음악교육과	팀원
5	김윤지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팀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활동분야

평 화 ▣ '나, 우리, 가족, 나라' 에 관한 일상평화토론
인 권 ▣ 세계시민교육 중 청소년 교육의 평등성

결과보고서

저희 UNAI 전남대 지부는 첫번째, '평화' 토론폰장을 만들어 광주광역시 청년과 지역사회 청소년이 만드는 평화와 관련된 '나, 우리, 가족, 나라' 에 대한 주제가 적힌 카드를 사용하는 '평화' 토론폰장에서 일상부터 사회현상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기준이 된 자신의 평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눔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새로운 참교육의 토론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평등한 교육 제공, 고등 교육체계 역량강화 등 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여 SDGs 17가지 의제를 세계시민교육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하여 지역사회에 기여가치가 높은 단체로 발돋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평화' 토론폰장의 수업을 5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동안 16번의 수업을 각 초등학교 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문흥초등학교 4학년 전반과 문흥중앙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전반에서 모두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역사회 내에 이미 SDGs를 주제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GESD 선생님들의 교육 교재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만의 교수안을 작성하고, 교육 준비물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UNAI 전남대 지부 자체 회의와 담당 교수님, GESD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회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는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풍부해지고, 튼튼해지는 교육내용들을 정말 많이 뿌듯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수안을 토대로 각 반 담당 선생님들과 반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6명 정도의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고, 평화 토론 재료인 평화카드를 놓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각 주제의 카드를 선택해서 뽑은 뒤 그룹인원들이 그 주제에 놓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UNAI전남대 지부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메모하여,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주어, 다시금 그 토론의 내용을 상기 시켜주었습니다. 저희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사회를 진행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도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주제로 다시금 토론해 보고, 어른으로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업내용으로 평화 미술활동이 있었습니다. 학급 반 학생들이 물감을 사용해서 지문과 손바닥으로 캔버스에 직접 찍고, 원하는 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평화에

대한 문구나 '평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을 기록하는 활동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신체 접촉이 있는 활동이어서 공유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준비했던 것 보다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학생들의 공동 작품을 각 학교에 전시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통해 정말 이 많은 학생들과 학교가 모두 Peace Maker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몇 명이 모여서 노력하고 만들어낸다면 평화가 꽃 피울 수 있겠구나 라는 책임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작은 활동에도 이렇게 좋아하고, 함께 동참하고,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생들과 함께 거리 퍼포먼스와 버스킹을 나가보면 어떨까? 라는 대화가 UNAI 전남대지부 회의 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GESD 기획활동 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고, 아직 저희 동아리로서 학생들을 통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안을 표현해보자라는 의견을 토대로 환경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플라로이드로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환경보존의 메시지를 남기는 퍼포먼스와 피켓을 함께 제작하고 거리에서 함께 들고 걷는 퍼포먼스와 환경 캠페인송을 만들어서 함께 단체로 노래를 통해 환경보전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에게서는 많이 사라진 아이들만의 순수함과 환경보전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평화의 마음이 만나게 되니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만이 연출되어 고생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노력한 것 보다 많은 것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후에 선생님들과 저희 동아리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피드백 할 때도 아이들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잃지 않게 해 주는 것도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방법이겠다 라고 한 말이 가장 저희의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모두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평화를 찾지 않아도 되는 이미 평화의 세계가 되어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대로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 정말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 내에서 저희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평화수업을 진행하였고, 모든 작품들은 전시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모든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정말 아이들은 스폰지같고, 저희보다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으며,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잊지 못할 4개월을 채워 보낸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과 활동을 많은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것이 활동상 아쉬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는 광주지역 특성상 서울과 유네스코 본부와 교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팀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동참하고, 행사가 있을 때 가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동이 어려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 활동점검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내려오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는 초등학교 방학중이어서 큰할

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을 통해 평화수업과 평화 활동을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청소년과 초등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교류하고,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도 중심이 되어 활동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말 유익하고, 참된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사진



평화미술수업



환경캠페인



평화토론수업



Peace Makers



지역아동센터 평화수업



평화달력 만들기

2017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보고서

펴 낸 때 | 2017년 12월 21일

펴 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 낸 이 | 김광호

편 집 | 김은영 유수정

디 자 인 | ㈜금강디자인브릿지 (02 2266 6750)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04536

전 화 | (02) 6958 4100

팩 스 | (02) 6958 4250

이 메 일 | youth@unesco.or.kr

홈페이지 | www.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SC 2017 RP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